

# 사라진 '영끌·빚투' 광주·전남 가계대출 감소세

2분기 대출잔액 58조3847억...전분기보다 1917억 줄어

금리 상승세 속에서 광주·전남 가계대출이 올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오는 25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말 기준금리가 2.75%~3.0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 30조 3567억원·전남 28조280억원 등 58조3847억원으로, 전분기보다 0.3%(-1917억원) 감소했다. 광주·전남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59조 2202억원) 이후 올해 1분기 58조5764억원, 2분기

58조3847억원 등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분기(56조7479억원)와 비교하면 2분기 잔액은 2.9%(1조6368억원)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감액을 따지면 2분기 광주지역은 923억원, 전남은 994억원 감소했다. 앞서 1분기 감소액(광주 1573억원·전남 4865억원)보다 감소 폭은 완화됐지만 가계대출이 2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것이다.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르고 주택 매매도 뜸해지면서 가계대출이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2분기 들어 2금융권(비은행권) 가계대출은 또다시

증가했다. 지난 2분기 광주·전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전분기보다 3170억원 감소했지만 비은행 대출은 1253억원이나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1분기 1370억원에서 2분기 3270억원으로 138.7%(19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난 2분기 예금(수신)은 전분기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분기 광주·전남 예금취급기관 신규 예금은 6조 3114억원으로, 전분기(3조4554억원)보다 82.7%(2조856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3조2735억원)에 비해서는 92.8%(3조379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분기와 비교해 광주·전남 예금은행 수신은 4조 1801억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에서의 수신은 1조 3241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건 대출을 조이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은행이 대출 한도가 더 나오거나 금리 차이가 예금은행과 크지 않는 경향 탓에 비은행 가계대출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은 전월대비 증가 규모가 모두 축소됐다. 예금은행 수신은 기업자유예금 등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과 공공 및 기타자금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됐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공공 및 기타자금이 줄어들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환율, 금융위기 후 최고치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 23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5.7원 오른 달러당 1345.5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2.0원 오른 1341.8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 134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해 전날 기록한 연고점(1340.2원)을 경신했다. 이러한 환율 수준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약 13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증가 기준으로는 2009년 4월28일(1356.80원) 이후 가장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통화긴축 의지를 재강조하고 나선 데다, 유럽의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화 가치가 급등한 영향을 받았다. /연합뉴스



##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 출발 좋다

사전계약 첫 날 3만7446대 신기록...세계 매체들도 호평

현대자동차는 지난 22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첫 세단형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사전계약 첫날 계약 대수가 3만7446대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역대 최대 첫날 사전계약 대수인 아이오닉 5의 2만3760대를 1년 반 만에 1만 3686대 초과한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6의 혁신적 내·외장 디자인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력 성능을 기반

으로 한 뛰어난 주행가능거리, 새로운 전기차 경험을 선사하는 신기술 등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이오닉 6는 6.2km/kWh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소비효율, 산업부 인증 기준 524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현대차 역대 모델 중 최저 공기저항계수(0.21), 매끈한 유선형 외장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실내 공간, 역동적 주행성능과 최첨단 안전·편의사양

등이 특징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아이오닉 6는 세계 주요 매체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스포트'는 "아이오닉 6는 외장형 액티브 에어플랩 등 다양한 공력 분야의 기술들이 대거 적용돼 양산차 중 최고 수준의 공기역학 성능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는 "몇 년 전, 현대차는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영감을 반영한 프로페시 컨셉트카의 매끈한 디자인으로 미래를 예언했다"고 호평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오이·애호박 값 보니 '간담 서늘'

잡은 비에 생육부진...가격 '썩썩'

잡은 비 영향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오이와 애호박이 각각 개당 1000원, 2000원 넘게 팔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3일 발표한 광주·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 2216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오이 1개 가격은 1500원으로, 전년(800원)보다 87% 상승했다. 2주 전(1170원)보다는 28% 오른 가격이다. 오이는 잡은 비로 생육이 부진하고 고온다습한 날씨로 품위가 저하되면서 가격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이유로 상추 가격(100g)도 전년보다 23% 오른 1650원에 팔리고 있다. 애호박은 산지 재배면적이 줄고 출하량도 감소하면서 1개당 가격이 2370원으로, 전년(1420원)보다 66%나 올랐다. 100g은 지난해 230원에서 이날 기준 390원

으로, 69% 상승했다. 제철을 맞은 포도(캠벨엘리 1kg)도 전년보다 23% 오른 1만800원에 거래됐다. 반면 쌀은 올해도 생산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20kg 소매 가격이 전년보다 13%(-8000원) 떨어진 5만6000원에 판매됐다. 고구마 1kg 가격은 5330원으로, 전년보다 9%(-534원) 하락했다. 배추는 전년 대비 비싼 가격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환포기에 2주전 보다 4% 하락한 7430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년(4840원)보다 53% 높은 가격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향후 2주간의 전망에 대해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사과·배는 태풍피해 없이 생육기 기상호조로 작황이 양호해 전년대비 가격은 약세가 전망된다"며 "하지만 이른 추석으로 품질에 따른 등급간 가격 편차는 클 것으로 전망되며, 채소류는 향후 맑은 날씨에 예보되고 있어 출하량 및 고품질 물량 증가로 약보합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위니아, 독일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위니아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 독일 '2022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며, 독일의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한다. 위니아가 수상한 디자인 콘셉트 부문은 디자인 콘셉트 및 시장성 있는 제품에 대한 상으로, 아이디어 또는 출시 계획이 있는 미래 지향적인 콘셉트나 디자인을 평가해 수상한다. 본상을 수상한 위니아의 '레인지 팝'(RANGE POP)은 새로운 외관 디자인과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신개념 전자레인지로, 사용 시 전면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자파 걱정을 줄이기 위해 상단에 자동으로 팝업되는 방식을 적용했다. 또 전면에는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간편한 시간 확인에서부터 요리시간, 전자저울 등 조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위니아 관계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것은 위니아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갖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적금 가입하고 명품백 받았어요.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 '쏟아진 마이 디지털 적금'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 당첨자를 초청해 해외명품 가방과 스마트TV 등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대한LPG협회, 소상공인 사연 공모

'1등 경품' LPG 화물차

대한LPG협회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는 9월27일까지 SBS파워FM '두시탈출 쿼투쇼'를 통해 사연을 공모, 1등 경품으로 LPG 화물차를 지원한다. 이번 사연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당사자 혹은 그 가족으로서 겪은 따뜻한 감동이나 희망, 유쾌한 사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연 공모는 쿼투쇼 홈페이지 '행복트럭' 게시판을 통해 진행된다. 수상작은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쿼투쇼 방송 '소확행'(소상공인에게 꼭 드러버리는 행복트럭) 코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사연이 소개되면 20만원 상당의 LPG 충전권을 증정하고, 그 중 최우수작(1명)에게는 친환경 LPG 1톤 트럭(기아 봉고3 LPG)을 수여한다. 그

외에도 추첨을 통해 참여자 2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SK가스, E1 양사가 조성한 'LPG 희망충전기'에서 마련됐다. E1, SK가스와 대한LPG협회는 'LPG 희망충전기'를 통해 택시업계를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LPG 배관망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5.34(-27.16)
↓ 코스닥	783.42(-12.45)
↑ 금리(국고채 3년)	3.281(+0.036)
↑ 환율(USD)	1345.50(+5.70)